

# 불교근현대사 자료집 출간

## 1920~69년 동아·조선·경향계재 불교기사 총망라

일간신문에 보도된 불교관계 기사를 모두 찾아 주제별로 분류, 정리한 불교근현대사 자료집이 나온다.

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회장 해남, 대표간사 법진)가 3년여의 자료수집 과정을 거쳐 4·6배판 두 권, 1천4백5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펴내는 <신문으로 보는 한국불교근현대사>가 그것으로, 이 자료집에는 현 일간지의 체계를 갖춤과, 기사제목과 인명·용어 색인을 달았다. 수록된 기사 수는 2천8백32건에 이른다. 이 건수는 6월에 한차례씩 불교관계 기사가 수록된 풀이다.

연구회는 자료수집을 위해 각 신문사 자료실과 국립중앙박물관 국회사서관에 보관된 마이크로필름을 일일이 탐색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자료집 발간은 애초 선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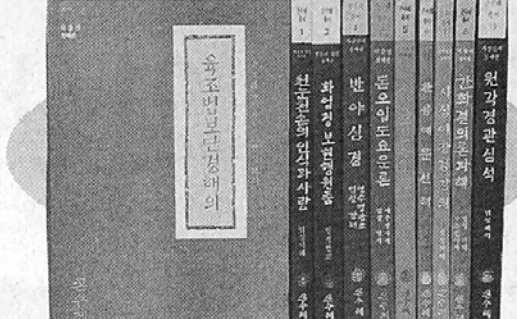
량 진행해온 법진스님은 "불교가 한국 최대의 종교단체로 우리의 근현대 역사에서 나름의 역할을 담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치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반성하고 "한국불교가 우리의 근현대 역사속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밝히는 데 무엇보다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의 한국불교를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근현대 불교사 관련 자료의 빈약함이 시달리는 불교계는 물론 현대사연구자들에게도 귀중한 자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근현대사에 큰 영

향을 끼쳤으면서도 자료의 부족으로 불교의 역할을 소홀히 다루는 일부의 편견을 바로잡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는 이 자료집 1천부를 제작, 불교단체와 불교사연구자 언론사 및 공공도서관에 무료배포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 법성스님

"선(禪)은 교리체계와 다르지 않다. 물론 삼과도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 시대에 맞는 선수행법을 생산하고 종래의 성과를 재해석해야 한다."

지난 90년 이후 선과 교(敎)와 보현행원의 하나됨을 각운동(覺運)의 이름으로 추구한 조계종 교육원 역경위원장 법성스님(대승원 원장)이 불전역해 10권을 발간, 오는 11, 12일 출판기념회 및 대승원 도량기

조범보단경해의) <원각경관심석> 등 10권이다. 이 목록은 불교대중들에게 널리 독송되거나 선원에서 문제의 제적으로 꼽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이다.

법성스님의 이번 작업은 단순한 연례 이상의 한국불교사 상사에 큰 획을 긋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없는 선(暗禪)과 선없는 교(狂慧)의 양자의 부정을 통한 행, 즉 선을 근본

다. 한국불교 선종의 소의어록인 <단경>을 그 이전의 <마하지관>과 이후의 <선문요술> 등과 연결지어 통시적으로 풀이하는 데서 나타난다. 즉 각 화선이 가장 발전된 수행법이지만, 간화선을 탄생시킨 토대의 종합적 검토가 있어야만 올바른 간화선을 정립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는 한국의 전통수행법에서 제외된 위빠사나 등 원시불교의 수행법이

## '신문으로 보는 불교...' 선우도량 3년작업

### 교단·문화재등 2803건 주제별로 정리

가 창간된 1920년부터 69년까지의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에 게재된 불교관계 기사 및 해설 기고문 등을 망라했다.

또 수집된 자료를 '교단' 각종 행사와 단체활동 '포교당'(이상 상권) '불교일반' '불교문화재 및 사찰탐방'(하권) 등의 주제로 나눠 자료집으로서

이 자료집을 통해 불교의 왜색화 과정, 국내의 불교인의 독립운동, 승려의 좌익운동 그리고 정화운동 전개과정을 신문기사 특유의 현장성을 살린 생생함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친일승려들의 입력 속에서도 불교가 민족종교로서의 전통을 지켜온 과정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일정부분 한계를 지니기도 한다. 신문자료를 모은 것이기 때문에 일부 기사의 오보나 추측기사에 대한 확인작업이 필요하다. 법진스님은 이에 대해 "기사마다 해설을 덧붙

여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계획했으나 지면과 편집인의 여러 사정으로 쉽지 못해 후일 로 미루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현재의 한국불교를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근현대 불교사 관련 자료의 빈약함이 시달리는 불교계는 물론 현대사연구자들에게도 귀중한 자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근현대사에 큰 영

## 법성스님 '불전역해' 10권 발간

선·교 재정립 보현행원 실천운동 제창 11·12일 출판기념회

금 마련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에는 펴낸 10권의 불전역해는 그동안 13회에 걸친 선수행법회와 근본불교연구소의 경전공부모임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큰수레중서'로 묶어 펴냈다(도서출판 큰수레).

'말을과 실천' '사상신서' '경전읽기' '대승선' 등의 분야로 나눠 <천년전선의 인식과 사랑> <화엄경 보현행원품> <반야심경현수법장소> <돈오입도요론본> <지장보살본원경> <관음보살본원경> <사십이장경강의> <간화결의론과해> <육

종지로 한 보현행원을 추구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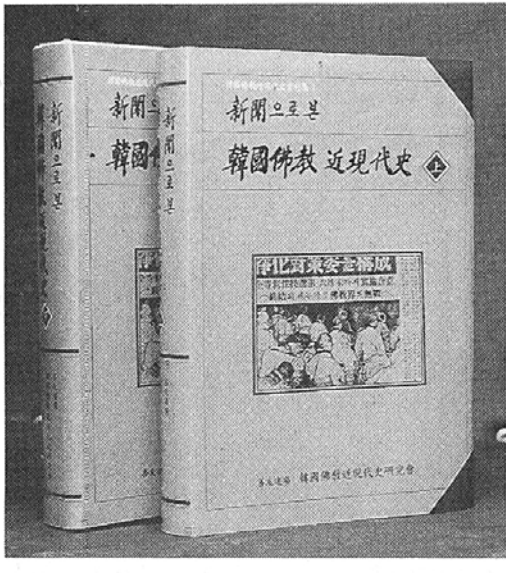
법성스님은 "선을 근본종지로 선과 교, 선과 보현행의 하나됨을 표방하는 각운동의 일환"이며 "미래사회 급격한 문명변화에 적응하고 대중에 이익을 주는 불교가 되기 위한 선·교의 재정립, 즉 불교사상운동의 제창"이라고 밝힌다.

이같은 주장의 사상적 역사적 맥락은 선을 교와 사회적 실천으로 통합한 용성스님과 중국초기선의 남양해사선사의 선종에 닿아 있으며, <육조법보단경해의>와 <돈오 입도요론본>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포함된다.

법성스님의 이같은 작업은 26년의 출가기간이 극과 극을 달린 시기였다고 스스로 평가하듯 개척적 삶과 행적과 무관하지 않다. 출가 이후 16년간의 화두참구, 80년 이후 사회운동의 핵심에 선 것이 그것이다.

법성스님은 이후 <전통목> <마하지관>을 원전에 대한 개관적인 우리말 옮김은 물론 주와 해제에 충실한 번역서로 출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마하지관>은 간화선과 위빠사나 두 수행법의 원류를 찾는, 한국불교 선수행의 재검토 작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론연구 김인덕 저음

## 중론연구 김인덕 저음

'중도' 관련 논문 묶은 본격 연구서

용수의 저작(중론)은 대승불교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대승불교 2대사조의 한 축인 중관학파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저술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한국불교학계에서는 그동안 이 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를 내놓지 못했다.

용수(중론)의 핵심은, 불교의 근본진리는 연기의 법칙에 있으며, 이 연기의 법칙을 '공·공성' 또는 '중도'라고 밝힌 것.

김인덕교수(동국대 불교학과)의 <중론연구>는 이 분야의 본격적인 최초의 연구서로 기록된다.

'중론의 내용 개관' '팔부설(八不宣說)에 대

## 순가락은 법맛을 모른다 김원각 저음

실화·고승일화 통해 바른삶 안내

부처님 가르침의 방법은 크게 직설법과 비유법으로 나눌 수 있다. 비유법은 합리성과 논리에 갇힌 감각을 일깨우기 위한 방법이다.

<순가락은 법맛을 모른다>는 불교의 여러 경전에서 뽑아낸 150가지 우화와 실화에 간략한 주석을 붙이고, 각 이야기의 말미에는 출전을 밝힌 실화집.

부처님과 제자들, 부처님이 살았던 시대의 왕과 권력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한국 일본의 고승들이 남긴 일화를 망라했다.

때로는 지난친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어리석은 집착에 빠지기도 하며, 노력도 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한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기도	일 타	효림
2	소설 등신불	석용산	문학수첩
3	티벳사자의 서	피드삼베	정신세계사
4	반한암 선사	김호성	민족사
5	달미의 가르침	이기영	불교진흥원
6	달미의 제자들	고우영	불지사
7	영원한 자유의 길	성철	장경각
8	운법의 법칙	김성규	큰산
9	존재론·시간론	새뮤얼 베크	불교시대사
10	사찰의 변화이야기	권영한	전원문화사

구입문의:(02)737-0695

## 새로나온 책.....

▲**불교로 보는 우리역사2**(서경보 지음)=고려와 조선시대의 불교인물과 불교제도를 통해 불교가 한국인의 정신문화에 끼친 영향을 살렸다. 저자는 고려시대는 불교의 쇠미기이며, 조선시대는 고사기라고 규정하고, 오늘날의 불교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모색하

▲**마음의 녹을 뒤으며**(장문선 엮음)=법주경 설타니파타 선가귀감 등 경전과 선사어록 가운데서 현대생활에 밀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려 뽑아 재구성한 문헌집. '번뇌의 나루를 지르는 도개' '눈을 감고 마음오름' 등 4장으로 구성했다. <문예산책, 5천5백원>

▲**불교정보**(이성호 엮음)=

▲**마음의 녹을 뒤으며**(장문선 엮음)=법주경 설타니파타 선가귀감 등 경전과 선사어록 가운데서 현대생활에 밀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려 뽑아 재구성한 문헌집. '번뇌의 나루를 지르는 도개' '눈을 감고 마음오름' 등 4장으로 구성했다. <문예산책, 5천5백원>



▲**마음의 녹을 뒤으며**(장문선 엮음)=법주경 설타니파타 선가귀감 등 경전과 선사어록 가운데서 현대생활에 밀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려 뽑아 재구성한 문헌집. '번뇌의 나루를 지르는 도개' '눈을 감고 마음오름' 등 4장으로 구성했다. <문예산책, 5천5백원>

▲**불교정보**(이성호 엮음)=

▲**마음의 녹을 뒤으며**(장문선 엮음)=법주경 설타니파타 선가귀감 등 경전과 선사어록 가운데서 현대생활에 밀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려 뽑아 재구성한 문헌집. '번뇌의 나루를 지르는 도개' '눈을 감고 마음오름' 등 4장으로 구성했다. <문예산책, 5천5백원>

▲**불교정보**(이성호 엮음)=

▲**마음의 녹을 뒤으며**(장문선 엮음)=법주경 설타니파타 선가귀감 등 경전과 선사어록 가운데서 현대생활에 밀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려 뽑아 재구성한 문헌집. '번뇌의 나루를 지르는 도개' '눈을 감고 마음오름' 등 4장으로 구성했다. <문예산책, 5천5백원>

▲**불교정보**(이성호 엮음)=

## 해인승가대 동문회 회지 '구광' 창간

해인승가대 개원 40주년 기념 창간호에는 조계종 전계대화상 일타스님의 창간사를 비롯 '나의 강원시절'(윤문 철환 법조)과 종단문제(일본, 시현) 불교인론(혜종) 불교교육(수진)에 관한 동문들의 시문을 실었다.

# 공산 종주국 소련 최초 방문

## 승산 스님 10

1986년 11월 19일, 행원스님은 출현단신으로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올랐다. 폴란드의 불자 50여명이 나와 따뜻하게 전송을 했다. 일주일 전까지만해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소련행이 좌초되는 듯 했었는데 폴란드의 제자들이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여 준 덕분에 소련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게 됐다.

행원스님은 이미 폴란드뿐 아니라 노르웨이, 프랑스, 유고슬라비아, 이태리 등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여행길의 가장 정점에 올라 있었다. 폴란드의 혁명도시 그단스크를 찾았을 때의 기억도 매우 진하게 남아 있었다. 스님은 그단스크의 발레크법사 집에서 묵었다. 발레크는 그단스크 선원의 책임자였다. 선원은 50평 가량의 아파트였고 매일 찾아오는 불자들에게 참선을 지도했다. 그단스크에는 법사 자격을 받은 이가 15명이나 됐고 2백50여명이 5계를 받았다. 이곳의 신도는 모두 7백여명이라고 발레크는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행원스님이 소련행 비행기에 오르기 닷새 전, 그러니까 11월 14일 오후 5시30분에 스님은 그단스크 대학강당에서 대법회를 가

## 모든 이들의 안락을 위하여

지구촌 전법이야기

졌다. 처음은 아니었다. 3년 전에도 이곳에서 법회를 가졌던 일이 있었다. 그날 스님은 1천6백명의 대중들을 향해 인권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폴란드의 수도 워샤, 제3의 도시 크라카우 등지를 비쁘게 다녔던 며칠의 일정에 피곤했다. 그러나 스님은 피곤할 수가 없었다. 처음은 찾아가는 소련, 모스크바라는 도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렉명의 기발을 연상시키는 도시를 향해 하늘을 날고 있는 입장에서 스님은 도저히 피곤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비행기는 1백50여명이 앉을 수 있으나 정작 승객은 20명도 채 못되었다. 폴란드의 발레크 법사가 이미 기차로 모스크바를 향해 갔으니 스

네에서 스님은 "진짜 이곳이 모스크바구나" 하고 새삼 놀랐다.

미국의 2~3류 호텔 수준일뿐인 벨그라드 호텔에서의 첫날. 스님이 묵는 23층 18호실로 뚝뚝의 손님이 찾아 왔다. 트루니라는 청년이 친구들과 찾아와 "우리는 요가를 합니다. 선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지요"라며 인사를 했던 것이다. 스님은 그들과 선과 요가의 차이점 티베트 불교와 선불교의 차이, 장단점들을 두루두루 설명했다.

그 낯선 땅의 어색한 호텔방에서도 스님은 청년을 위해 불교를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스님에게 큰 기쁨이었다. 공산국가의 핵심도시에서 자칫 우울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소련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과거와 장래를 생각하며 인간 세상의 희망 성취를 느끼며 잠을 설쳤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스님은 소련의 청년들과 불교를 얘기하며 첫 밤의 고단함을 달랐다. 크레믈린 광장, 레닌 스타디움 박물관과 문화회관, 지하 철도지를 관광했다. 뒤늦게 도착한 마레크 법사의 세심한 설명으로 그 도시의 곳곳을 알게 됐다.

20일에는 제코부스키 정신문화협회회장의 초청을 받아 13명의 협회 회원들과 저녁을 먹고, 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련의 지성들도 선에 대한 스님의 이야기에 매우 호감을 가졌다.



◊ 86년 11월 소련을 방문한 행원스님이 현지지의 수계제자들과 모스크바 문화회관에서 화상 촬영을 했다.

## "禪이란 외적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에 혁명을 이루는 길"

웬만큼 성질이 급하거나 모난 사람이라면 "에이 쌍"하고 돌아 가버릴 정도로 세심했다. 더구나 스님복장에 한국인이란 것이 스님을 더욱 힘들게 했다. 물고 또 물고 뜬에 대한 관심은 왜그리 대단하고 책을 찾아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는 동안의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면 그렇게 기쁠 것이다.

대학교수의 부인인 마이로키의 안내로 호텔을 찾을 수 있었다.

호텔로 가는 도중 택시에서 언뜻 볼 수 있었던 크레믈린 궁전, 그 꼭대기를 장식한 큰 별 모양의 붉은

미국으로 돌아갈 참이었다. 파리로 향해 가는 배행기에서 스님은 절절히 생각했다.

"웃음이 없는 나라, 자비와 사랑이 메미른 나라, 서로 믿지 못하고 감시하는 나라, 봉사와 보살행이라고는 꿈에도 보지 못하는 나라, 어찌 인간 세계라 할 수 있겠는가. 언제 그들이 러시아의 호탕하고 인정 많은 대륙인으로 돌아와 참다운 자유와 평등과 행복을 누릴 것인가. 하루빨리 그 땅에 평화가 깃들길 제 불보살님께 축원하나다..."

임연태 기자